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쿠웨이트

State of Kuwait

2022년 3월 4일 | 책임조사역(G3) 류강걸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18천 km <sup>2</sup> 	<b>인구</b> 4.7백만 명 (2021 <sup>o</sup> ) 	<b>정치체제</b> 입헌군주제 	<b>대외정책</b> 친서방 실리외교 
<b>GDP</b> 1,323억 달러 (2021 <sup>o</sup> ) 	<b>1인당GDP</b> 27,927달러 (2021 <sup>o</sup> ) 	<b>통화단위</b> Kuwaiti Dinar (KD) 	<b>환율(U\$기준)</b> 0.30 (고정환율) 

- 196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쿠웨이트는 북쪽으로 이라크, 남쪽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접경해 있으며, 동쪽으로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마주하고 있음.
- 전체 인구 중 쿠웨이트인이 30%에 불과하고, 아시아인(40%)과 아랍인(27%) 등 외국인이 다수를 차지함. 수니파 중심의 이슬람 국가이나 소수의 시아파에 대한 차별이 덜해 이슬람 종파 간 갈등이 적고, 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사회질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인구 470만 명,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8%에 불과한 1.8만 km<sup>2</sup>의 소국임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원유 매장량(세계 7위)을 보유한 자원 부국임. 다만, 석유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님.
- 1990년 이라크의 침공으로 점령당했으나, 1991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의 참전으로 이라크의 점령에서 해방되었음. 2020년 9월 사바(Sabah) 국왕의 서거 후 가문 내 합의에 따라 선왕의 이복 동생인 나와프(Nawaf) 왕세제가 신임 국왕으로 즉위하였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9. 6. 11 수교 (북한과는 2001. 4. 4 수교)

**주요협정** 항공운수협정('82년), 문화협정('83년), 이중과세방지협약('00년), 경제기술협력협정('06년), 투자증진보호협정('07년), 형사사법공조조약('08년), 범죄인인도조약('13년), 외교관·관용·특별사증 면제협정('15년), 수형자이송조약('15년)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주요품목
수 출	956,032	660,349	349,136	선박해양구조물, 전력용기기, 자동차
수 입	10,771,088	5,827,875	8,260,131	원유, 석유제품, 기타정밀화학제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21.9월말 기준)** 31건, 27,081천 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제성장률	-4.7	2.4	-0.6	-8.9	0.9
소비자물가상승률	1.5	0.6	1.1	2.1	3.2
재정수지/GDP	6.3	9.2	5.0	-8.3	-1.5

자료: IMF, EIU

※ IMF에서 발표하는 쿠웨이트의 재정수지는 미래세대기금(FGF, Future Generation Fund) 적립의무 이행 전 수치임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 큰 폭의 마이너스 경제성장 후 2021년 소폭 플러스 성장 추정

- 2020년 쿠웨이트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로 인한 내수 부진, 국제 실물경기 위축, OPEC+ 감산 합의 이행에 따른 산유량 감소 등으로 -8.9%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음.
- 2020년 4월 20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배럴당 -37.63 달러로 사상 첫 마이너스 가격을 기록하는 등 석유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던 상황 하에서 OPEC+는 2020년 5~6월 간 하루 97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하기로 합의한 이후 현재까지 점진적으로 증산하고 있음.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는 합의한 감산량 외에도 하루 118만 배럴(사우디아라비아 100만 배럴, 아랍에미리트 10만 배럴, 쿠웨이트 8만 배럴)을 자발적으로 감산하였음. 이러한 영향으로 쿠웨이트의 석유 부문은 2020년 전년 대비 -9.8% 위축됨(비석유 부문은 -7.5%).

※ '20년 OPEC+ 감산 쿼터 변화(만 배럴/일) : (5~7월)970 → (8~12월)770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 2021년에는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에 따른 내수 및 국제 실물경기 회복, OPEC+ 감산 완화 합의 이행에 따른 산유량 증가 등으로 0.9%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한편, 쿠웨이트 정부는 코로나19에 신속히 대처하여 2021년 9월 기준 접종 대상자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8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등 경제활동 재개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21년 OPEC+ 감산 쿼터 변화(만 배럴/일) : (1~3월)720 → (4월)690 → (5월)655 → (6월)620 → (7월)576 → (8월)536 → (9월)496 → (10월)456 → (11월)416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22년 실물경기 회복에 따른 원유 국제수요 증가, OPEC+ 감산 완화로 플러스 경제성장 전망

- 백신 보급 확산에 따른 국제 실물경기 회복, OPEC+의 감산 완화 기조에 따른 산유량 증가 전망 등에 따라 쿠웨이트는 2022년 4.3%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IMF)됨.

\* 주요 기관별 전망치 : IMF 4.3%, IHS 5.3%, Fitch 5.0%, Moody's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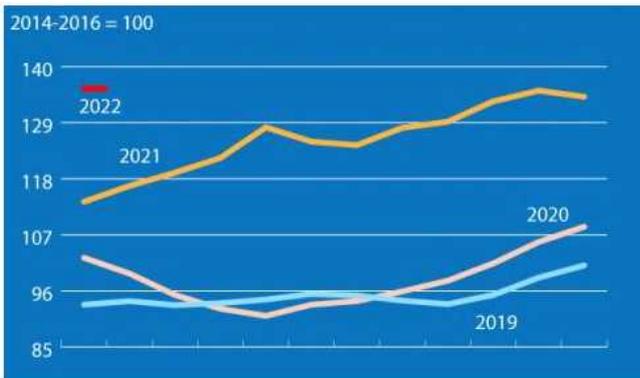
- 현재 쿠웨이트의 백신 보급 수준을 고려할 때, 쿠웨이트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여 내수 회복을 저해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한편, OPEC+는 2022년 1월 오미크론 변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가볍고 일시적일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2월에도 하루 40만 배럴씩의 증산을 지속하기로 결정함.

## 국내경제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료품 및 에너지 국제가격 상승 등으로 2021년 3.2%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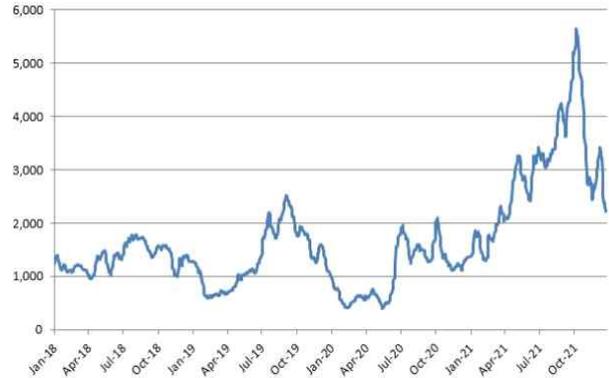
- 전 세계적 이상기후로 인한 곡물 가격 상승과 그로 인한 식료품 국제가격 상승, 글로벌 유통망 장애에 따른 수송 비용 상승, 중동 및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위험 증가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2021년 쿠웨이트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2%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IMF).
-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FFPI)에 따르면 FFPI는 2020년 5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 2022년 1월 135.7을 기록하며 2010년 말 반정부 시위인 '아랍의 봄' 사태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함.
- 2021년 평균 해상운임지수(2,943) 역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었음.
- IMF는 지정학적 요인 등에 기인하여 에너지 국제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고, 국제 곡물가 역시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화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며 쿠웨이트가 2022년에도 3%대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그림 1] 세계식량가격지수(FFP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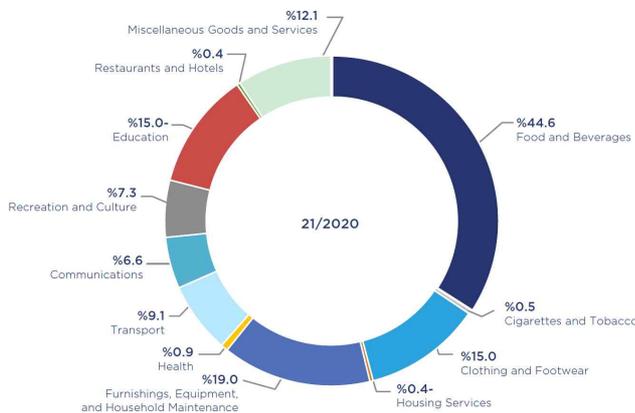
자료: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그림 2] 해상운임지수 추이(BDI 기준)



자료: Baltic Exchange, Clarkson

[그림 3] 쿠웨이트의 물가상승률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



자료: 쿠웨이트 중앙은행

## 국내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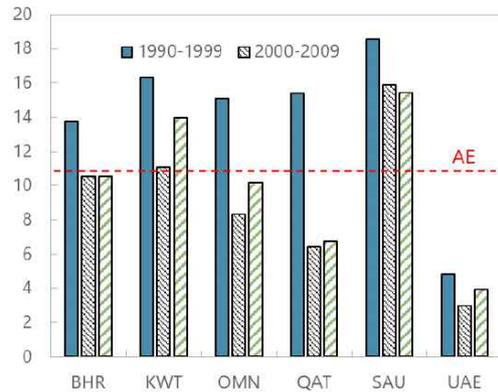
### 고정적 경상지출 부담이 지속된 가운데 2020년 국제유가 하락으로 큰 폭의 재정수지 적자 기록 후 2021년 국제유가 회복에 힘입어 재정수지 적자 축소

- 쿠웨이트는 재정수입의 90% 이상을 석유 부문에 의존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저유가 지속과 코로나 19로 인한 원유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재정수입이 줄어든 가운데 공무원 임금 및 보조금 등의 경상지출 부담 지속,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 부담 등으로 재정지출이 가중되어 GDP 대비 -8.3%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함.

- 과거 쿠웨이트는 석유 부문 호조로 1999~2014년 세 [그림 4] GCC 국가들의 GDP 대비 공무원 임금 비중 계 최고 수준의 재정수지 흑자(GDP 대비 평균 27% 수준, IMF)를 기록하였으나, 2015~16년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음.

※ 재정수지 추이(십억 쿠웨이트 디나르, IMF) : ('12)15.8 → ('13)16.9 → ('14)10.4 → ('15)1.9 → ('16)0.1 → ('17)2.3 → ('18)3.8 → ('19)2.1 → ('20)-2.7 → ('2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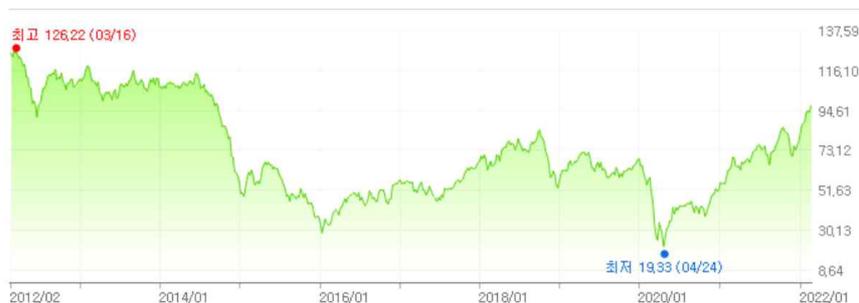
- 한편, 공무원 임금 및 보조금 총액이 정부지출의 70% 이상을 차지하여 이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이 지속되고 있음. IMF는 쿠웨이트의 공무원 임금이 2010~18년 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로 2000~09년의 11% 대비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임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함.



AE : 선진국 평균(Advanced Economies)  
연두색 빗금은 2010~18년 평균치임  
자료 : IMF

- 2021년 재정수입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한 221억 KD(쿠웨이트 디나르)를, 재정지출은 4% 증가한 227억 KD를 기록하여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27억 KD → -6억 KD)한 것으로 추정됨. 아울러 석유 부문 회복에 따른 GDP 증가(324억 KD → 402억 KD)로 2021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 대비 개선된 -1.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IMF는 단기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제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2022년에는 쿠웨이트가 GDP 대비 1.0%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다만, 강력한 재정건전성 강화 조치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수지가 다시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함.

[그림 5] 브렌트유 가격 추이(US\$/배럴)



자료: Intercontinental Exchange, Inc. 기준, Naver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 상 수 지	7,757	24,049	30,255	22,030	47,626
경상수지/GDP	6.4	17.4	22.2	20.8	36.0
상 품 수 지	25,648	45,711	35,361	15,412	36,038
상 품 수 출	55,175	77,080	64,797	40,248	63,597
상 품 수 입	29,527	31,370	29,436	24,836	27,559
외 환 보 유 액	31,430	34,788	37,434	45,495	39,690
총 외 채	54,238	62,537	68,306	71,942	75,992
총외채잔액/GDP	45.0	45.3	50.2	67.9	57.5
D.S.R.	3.0	3.7	4.1	5.0	3.0

자료: IMF, EIU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품수출 증가, 대규모 본원소득수지 흑자로 2021년에도 경상수지 흑자 증가세 지속 추정

- 경상수지는 2021년 GDP 대비 36.0%의 흑자(476억 달러, 전년 대비 116% 증가)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21년 국제유가 상승과 OPEC+의 감산 완화 합의 이행에 따른 산유량 증가로 상품수출액\*이 2020년 대비 58% 증가한 636억 달러를 기록하여 360억 달러의 상품수지 흑자를 시현하였으며, 국부 펀드를 통한 해외 투자소득 등으로 본원소득 수취액이 539억 달러를 기록하여 471억 달러의 본원소득수지 흑자를 시현함으로써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함.

\* 석유 부문이 상품수출의 90% 이상을 차지

- 다만, 외국인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무려 84%를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이전소득수지는 2021년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국 앞 송금으로 인해 17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 IMF, Moody's 등 다수의 기관들은 2022년에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국제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하며, 쿠웨이트가 GDP 대비 10%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2022년 기관별 국제유가 전망(브렌트유 기준, 달러/배럴) : EIA 82.87('22.2월 발표), Fitch 70('22.1월 발표), S&P 65('22.1월 발표)

※ 주요 기관의 2022년 경상수지/GDP 전망 : IMF 13.3%, Moody's 25.7%, Fitch 13.4% 등

## 외채상환능력

막대한 국부펀드가 국가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가운데 꾸준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양호한 외채상환능력 지속

- 쿠웨이트는 2021년 기준 5,005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KIA; Kuwait Investment Authority)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GDP의 3.8배, 총외채잔액의 6.6배에 달함. 또한, 2019년 이후 20%대 이상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을 기록하고 있음.
- 아울러 2021년 기준 재정수입 대비 공적채무 이자지급액 비중이 0%대(OECD 기준)이고, 상품수출 증가에 따른 총수출 증가(전년 대비 43.9% 증가한 1,250억 달러 기록)로 총외채잔액/총수출(82.8% → 60.8%) 및 D.S.R.(5.0% → 3.0%)이 모두 개선된 점을 고려할 때 쿠웨이트는 양호한 외채상환능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구조적취약성

###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은 한계에 직면하였으며, 고정적 경상지출로 인해 사회 인프라 투자 여력 저하

- Fitch에 의하면 쿠웨이트 정부지출의 70% 이상이 공무원 급여와 보조금인 고정적 경상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쿠웨이트 국민의 약 80%가 공공 부문에 고용되어 있어 정부의 재정부담이 큰 상황임.
- 향후 중기적으로 10만 명 이상의 젊은층이 노동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퇴직자 수를 감안하면 약 6만 개 가량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나, 정부의 재정여력 저하로 공공 부문에서의 추가 일자리 창출 여력이 한계에 직면해 있음.
- IMF는 쿠웨이트가 신규 일자리 창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의 비석유 부문(농업, 제조업, 금융 등)의 성장이 중요하며, 아울러 사회복지 혜택 개혁을 통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함.
- 한편, 쿠웨이트 정부가 2022년 1월 발표한 2022/23회계연도 예산안 초안에 따르면 임금 및 보조금의 비중이 총 재정지출의 74.5%를 차지하며 주요 인프라 투자(자본적 지출)에는 13.2%만이 지출될 예정으로, 높은 경상지출 부담이 쿠웨이트의 사회 인프라 투자 여력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

### 석유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변동 등 대외변수에 취약한 경제구조

- 석유 부문이 GDP의 50% 이상, 상품수출 및 재정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석유 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국제유가 변동 등 대외변수가 국가경제 전반을 좌우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님.
-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유가 급락과 OPEC+ 감산 합의 이행에 따른 산유량 감소로 2020년에는 -8.9%의 마이너스 경제성장 및 GDP 대비 -8.3%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에는 국제유가 상승 및 OPEC+의 감산 완화 합의 이행으로 0.9%의 플러스 경제성장 및 GDP 대비 -1.5%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였음.

### 공산품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전형적인 소비시장

- 생산기반 부재로 일반 생필품에서 자본재에 이르기까지 공산품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최근 5개년(2017~21년) 평균 상품 수입액은 285억 달러로 GDP의 약 23%에 달하고 있음.

### 높은 외국인 노동자 비중에 따른 만성적인 이전소득수지 적자 발생

- 쿠웨이트 중앙은행에 따르면 2020년 쿠웨이트의 전체 노동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4% 수준인 2.4백만 명으로, 국내 거주 노동자의 자국 앞 송금에 따른 이전소득수지 적자가 큰 편임. 2017~21년 기간 동안의 평균 이전소득지급액은 GDP의 13%에 달하며, 같은 기간 평균 이전소득수지 적자 규모는 169억 달러임.

## 성장잠재력

### 원유 및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이 풍부한 자원 부국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1에 따르면 쿠웨이트는 2020년 말 기준 1,015억 배럴의 원유(세계 7위) 및 1.7조 m<sup>3</sup>의 천연가스(세계 18위) 확인매장량을 보유한 자원 부국임. 이는 2020년도 생산량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원유 및 천연가스를 향후 각각 103년 및 113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임.

### 비교적 우수한 수준의 인적자원

-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하는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 2020에 따르면 쿠웨이트의 인간개발지수\* 순위는 전체 189개국 중 64위로 '아주 높은 인간개발 수준'(Very High Human Development)을 기록한 국가로 분류되어 있음.

\*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는 평균수명, 교육수준, 구매력 기준 1인당 GNI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며, 그 수준에 따라 크게 4가지(Very High Human Development > High Human Development > Medium Human Development > Low Human Development) 그룹으로 분류됨.

### 3대 주요 거대 시장을 연결하는 요충지

- 쿠웨이트는 페르시아만을 중심으로 1억 5천만 명의 거대 시장을 형성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과 국경을 마주한 요충지에 위치하여 유통업이 발달했고, 주변국의 유통망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음. 걸프 북부의 무역·금융 중심지로 재도약하기 위한 북부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2021년 걸프협력회의(GCC)의 카타르에 대한 봉쇄 해제로 쿠웨이트의 지정학적 중요도가 증가할 개연성이 있음.
- 특기할 만한 대규모 인프라로는 2019년 준공한 세계에서 가장 긴 해상교량인 '셰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사업'이 있으며, 이외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를 연결하기 위한 총연장 574km에 이르는 철도 사업 및 부비안 항만 건설 사업 등이 추진 중임.



자료 : Google Map

## 정책성과

### 걸프 지역에서는 비교적 선진화된 정치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정부와 의회 간의 갈등으로 주요 경제·세제 개혁 지연

- 쿠웨이트는 입헌군주제 국가로 GCC 국가 중 유일하게 의회가 존재함. 의회가 내각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등 비교적 선진화된 정치제도를 갖추고 있으나, 정부의 추가 국채 발행, 부가가치세(VAT) 도입 및 보조금 삭감 등의 주요 경제·세제 개혁이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지연되고 있음.
- **[공공부채법(Public Debt Law) 통과 지연 등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 상존]** 2015년 이후 지속된 저유가로 재정여력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쿠웨이트 정부는 2017년 3월 80억 달러 규모의 유로본드를 발행한 이후 공공부채법\*(이하 부채법) 만료로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못함.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큰 폭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유동성 확보 필요성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부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의회의 거부로 지연되고 있음.

\* 공공부채법 : 정부 차입 한도 및 만기 등을 명시한 법으로, 쿠웨이트는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정부채 발행이 가능함. 쿠웨이트 정부는 차입한도 확대(GDP의 60%), 차입만기 제한 삭제(現 최장 30년)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함.

- 부채법 개정을 통한 유동성 확보 외에 현실적인 대안은 미래세대기금(FGF, Future Generation Fund)을 통한 자원 마련이나, 이 역시 정부와 의회 간의 의견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
- 쿠웨이트는 2021년 OECD 자료 기준 5,005억 달러 규모(GDP의 3.8배)의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음. 동 펀드는 미래세대기금과 일반준비기금(GRF, General Reserve Fund)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준비기금에 한하여 재정지출에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미래세대기금을 재정지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특별 승인이 필요하나, 정부와 의회 간의 갈등으로 자금 전용 승인이 미뤄지고 있음.
- IMF는 미래세대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 경제 회복에 따른 추가 투자여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채법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함.

### 통화 바스켓 형태의 고정환율제 채택

- 쿠웨이트는 2007년 5월부터 미 달러 등 주요 통화 바스켓 페그(basket peg) 방식의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바스켓 구성 통화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으나 미 달러화를 중심으로 유로화 등 무역·금융상의 주요 상대국 통화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짐.
- 석유 부문이 재정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쿠웨이트는 정부의 재정수입 예측 가능성을 높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물가상승률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고정환율제를 채택한 것으로 보이며, 막대한 규모의 국부펀드 규모를 감안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고정환율제도의 유지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정책성과

### 석유 의존형 경제 탈피를 위한 경제개발계획 “New Kuwait 2035” 추진

- 쿠웨이트 정부는 2017년 1월 중동의 비즈니스, 문화, 교육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한 중장기 국가개발 계획인 “New Kuwait 2035”를 발표하였음. 동 계획은 5대 전략과 7개 축(Pillar)을 기반으로 석유 의존형 경제 탈피 및 산업 다각화, 정책실현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생활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축을 중심으로 총 160개 이상의 다양한 프로젝트가 단계적으로 수립·실행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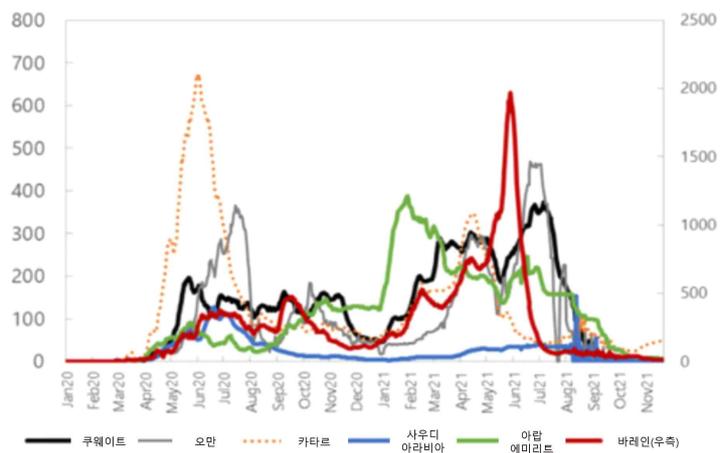
5대 전략	7개 축(세부 이행 방안)	
① 시민참여 확대 및 준법정신 확립 (Citizen Participation and Respect of Law)	① 공공 분야 (Public Administration)	행정, 정책 실현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②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 (Effective Government)	② 경제 분야 (Economic)	원유 수출에 의존적인 경제구조 탈피 및 산업 다각화를 통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확충
	③ 사회기반시설 (Infrastructure)	사회기반시설 현대화 및 개발, Jahra, Bubiyan 섬 등 북쪽 지역 개발을 통해 물류 중심으로 도약
③ 지속적 경제성장 기반 구축 (Prosperous Economy)	④ 생활환경 (Living Environment)	주택 보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⑤ 보건의료 (Health Care)	보건의료 시스템 및 의료 서비스 개선
④ 국가 통합 공고화 (Nurturing Nation)	⑥ 인적자원 개발 (Human Capital)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 강화
	⑦ 국가적 위상 (Global Position)	국제 사회에서 쿠웨이트의 외교적, 경제적, 문화적 위상 강화
⑤ 국제사회 역할 확대 (Globally Relevant Player)		

자료 : KOTRA

### 발빠른 백신 보급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노력

- 쿠웨이트 정부는 코로나19에 신속히 대처하여 2021년 9월 기준 접종 대상자의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8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등 발빠르게 백신을 보급하고 있음.
- 2021년 중 코로나19 변이의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꾸준한 백신 보급 노력으로 2021년 4분기부터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음.

[그림 6] GCC 국가들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백만 명당)



자료 : IMF

## 정치안정

### 2020년 9월 사바 국왕 서거 후 나와프 왕세제가 국왕으로 즉위하였으며, 나와프 국왕은 자베르 가문의 셰이크 메살을 왕세제로 임명하며 가문 내 왕위 계승 공고화

- 2006년 즉위 후 40년 이상의 세계 최장기 외교장관 경험을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바레인과 카타르 간의 단교 사태(2017) 해결 등을 포함하여 역내 국가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자임했던 사바(Sabah) 국왕이 2020년 9월 29일 91세를 일기로 서거하고, 쿠웨이트 헌법에 따라 선왕의 이복동생인 나와프(Nawaf) 왕세제가 국회 선서 절차를 거쳐 9월 30일 신임 국왕으로 즉위하였음.
- 신임 나와프 국왕은 즉위 후 2020년 10월 8일자로 자신의 이복동생인 셰이크 메살(Sheikh Meshal)을 신임 왕세제로 책봉, 조기에 정권 안정화를 꾀하고 자베르 가문의 우위를 보다 공고하게 다져 왕위 계승 명분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다만, 국왕(86세)과 왕세제(83세)가 모두 고령으로 후계 구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함.
- 쿠웨이트는 자베르(Al-Jaber) 가문과 살렘(Al-Salem) 가문이 교대로 왕위를 세습하였으나, 2006년 이후 자베르 가문이 왕권을 잡은 후 이복형제 간 왕위 세습을 이어가고 있으며, 메살 왕세제 책봉으로 자베르 가문에서 3회 연속 왕위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 정치적 교착 상태 해결을 위한 국왕의 노력

- 왕실과 정부가 절대적 권력을 가진 다른 걸프협력회의(GCC) 국가와 달리, 쿠웨이트는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의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등 상당한 권한을 행사함. 의회 내 야권은 반체제 인사와 개혁 운동가에 대한 사면과 사바흐 총리에 제기된 부패 의혹에 관한 청문회를 요구하며 정부와 대립해 옴.
- 나와프 국왕은 2021년 11월 13일 정부와 의회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반체제 인사 및 야권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령을 내림. 또한, 이전과는 달리 2021년 12월 새롭게 구성된 내각에 야권 의원을 포함(3인)시키는 등 야권과의 정치적 분열을 봉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향후 정책 추진 시 야권의 협력을 이끌어낼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쿠웨이트는 2021년 중 정부와 의회 사이의 대립으로 총리와 내각이 두 번이나 사퇴함.

## 사회안정

### 풍부한 복지혜택 제공 등으로 사회안정 유지

- 쿠웨이트는 과거 석유 판매를 통해 축적한 막대한 재정수입을 바탕으로 무상 교육, 무상 의료, 결혼 시 무상 주택 공급, 각종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여 사회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국제경제평화연구소(IEP)의 2021년 세계평화지수에 따르면 쿠웨이트는 MENA 지역 최상위권(2위) 수준의 평화지수를 기록함(163개국 중 36위).
- 다만, 정부가 재정 여력 저하로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보조금 개혁, 부가세 도입 등을 계획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국민의 불만 발생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현재 쿠웨이트인은 주로 공공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나 최근 공공 부문에서의 취업 기회 감소 역시 사회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임.

[그림 7] 2021년 MENA 세계평화지수

#### Middle East & North Africa

Regional Rank	Country	Overall Score	Score Change	Overall Rank
1	Qatar	1.605	0.015	29
2	Kuwait	1.688	-0.007	36
3	United Arab Emirates	1.848	-0.053	52
4	Jordan	1.916	-0.007	63
5	Oman	1.982	-0.004	73
6	Morocco	2.015	-0.038	79
7	Tunisia	2.108	0.024	98
8	Bahrain	2.121	-0.03	102
9	Algeria	2.31	0.02	120
10	Saudi Arabia	2.376	-0.014	125
11	Egypt	2.397	-0.013	126
12	Palestine	2.61	-0.074	138
13	Iran	2.637	-0.013	141
14	Israel	2.669	-0.074	143
15	Lebanon	2.797	0.037	147
16	Sudan	2.936	-0.028	153
17	Libya	3.166	-0.006	156
18	Iraq	3.257	-0.147	159
19	Syria	3.371	-0.033	161
20	Yemen	3.407	0.08	162
REGIONAL AVERAGE		2.459	-0.02	

자료 : 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

### 2021년 부패인식지수 순위는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GCC 국가 중 하위권 수준

- 2021년 쿠웨이트의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CPI)는 43점(100점 만점)으로 조사 대상 180개국 중 73위에 올라 2020년(78위) 대비 상승하였으나, GCC 국가 중 바레인(42점, 78위)을 제외한 아랍에미리트(69점, 24위), 카타르(63점, 31위), 오만(52점, 56위), 사우디아라비아(53점, 52위) 등과 비교 시 역내 하위권 수준임.
- 한편, 2020년 12월 실시된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50명 가운데 야권이나 야권 성향 후보가 24명으로 파악되어 종전(16명)보다 8명이 증가한 점은 부패와 관련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존재함.

### 세계자유지수는 37점으로 GCC 국가들 중 유일하게 '부분적 자유(Partly Free)'를 가짐

- 미국 Freedom House에서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한 2021년 쿠웨이트의 세계자유지수(Global Freedom Scores)는 37점(100점 만점)으로 집계되어 '부분적으로 자유(Partly Free)'가 있는 국가로 분류됨. 세부적으로는 '정치적 권리' 항목에서 14점(40점 만점), '시민의 자유도' 항목에서 23점(60점 만점)을 기록하였음.
- 쿠웨이트만이 유일하게 GCC 국가 중 부분적으로나마 자유가 있는 국가로 분류되었으며, 카타르(25점), 오만(23점), 아랍에미리트(17점), 바레인(12점), 사우디아라비아(7점)는 모두 '자유가 없는(Not Free)' 국가로 분류되어 GCC 국가들의 사회적 자유도는 전 세계 하위권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음.

## 사회안정

### Moody's는 쿠웨이트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신용영향점수를 3등급으로 평가

- Moody's는 쿠웨이트가 환경 영향에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는 점, 보통 수준의 사회위험, 외부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을 제한하는 제도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여 쿠웨이트의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 Moody's는 ESG 등급을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2021.11월 Moody's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우리나라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7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7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19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1개국이 2·3등급, 66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석유의존도가 높은 쿠웨이트는 글로벌 탈탄소 정책으로 인해 국가의 경제 및 재정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또한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국가 중 하나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수자원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물의 주요 조달 원천인 해수담수화 시설이 테러나 기름 유출 등의 해상 오염에 취약하다고 언급하며 환경(Environmental) 영향을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함.
- **(사회)** 젊은층의 증가로 일자리 창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능력이 부족하고, 정부의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가 비효율적이라고 분석함. 다만, 막대한 국부펀드를 활용하여 실업률 등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사회(Social) 영향을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함.
- **(지배구조)** 정부와 의회의 지속된 갈등은 효과적인 정책 결정을 방해하여 대외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경제·재정 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우려하여 지배구조(Governance) 영향을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함.

## 국제관계

### 수니파 이슬람 국가로 주변 수니파 국가들과 경제·외교 등에서 협력 중이며, 비동맹 중립외교를 표방하나 실질적으로 미국 중심의 실리외교 추구

- 쿠웨이트는 1981년 5월 걸프 지역의 다른 수니파 왕정국가들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바레인과 걸프협력회의(GCC)를 창설하여 자주적인 지역 집단 안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회원국 간 경제교류 및 외교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음.
- 2021년 1월 오만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아랍 4개국과 카타르 간의 외교관계 복원을 중재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외교능력을 높게 평가받았음.
- GCC 회원국들은 정치·경제적으로 상호 협력해왔으나, 카타르의 친(親)이란 정책과 이슬람주의 정치세력인 무슬림형제단(Muslim Brotherhoods)에 대한 지원을 이유로 아랍 4개국(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바레인·이집트)이 2017년 6월 카타르와 단교한 바 있음.

## 국제관계

- 한편, 1990년 걸프 전쟁 이후 미국으로부터 안보 분야에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며, 1991년 양국 간 안보동맹 체결 후 정치·경제·안보 등 전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2017년에는 새롭게 관세·원유·교육·과학·투자 등 7개 분야에서 MOU를 체결하는 등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지속 중임.
-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 지역에서 전투비행중대 감축, 패트리엇 대공미사일 철수 등 중동에 대한 영향력 축소 움직임을 취하고 있으나, 쿠웨이트는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미국 중심의 친서방 실리외교를 견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과의 개발 협력 강화 움직임

- 쿠웨이트는 걸프 아랍 국가 중 최초로 중국과 수교(1971년)하였으며, 2018년 7월 사바 국왕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개발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며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은 2019년 기준 쿠웨이트의 최대 수출상대국(20.7%)이자 2위 수입상대국(11.6%)으로, 양국은 ①방위산업 협약, ②화웨이-쿠웨이트 정보통신부(CITRA) 스마트 시티 협력 MOU, ③실크 시티 프로젝트 협력 MOU 등 'New Kuwait 2035' 플랜과 연계하여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그림 8] 2019년 쿠웨이트 상위 5대 교역상대국

(억 달러, 비중)

순위	수출국	금액	순위	수입국	금액
1	중국	134(21%)	1	UAE	85.4(26%)
2	한국	108(17%)	2	중국	38.6(12%)
3	인도	92(14%)	3	미국	31.7(10%)
4	일본	69(11%)	4	일본	17.2(5%)
5	대만	43(7%)	5	사우디	16.2(5%)
			9	한국	9.6(3%)

자료: KOTRA

##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수준 유지

- 2021년 9월 말 기준 쿠웨이트 앞 OECD 회원국 ECA의 지원 잔액 8,040백만 달러(단기 316백만 달러, 중장기 7,724백만 달러) 중 연체금액은 0.5백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이며, 현재까지 리스케줄링 경험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시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2등급(2022.01)	2등급(2021.01)
Moody's	A1 (2020.09)	Aa2 (2020.03)
Fitch	AA- (2022.01)	AA (2021.02)

### OECD는 쿠웨이트의 신용등급을 유지 중이나 국제신용평가사는 2021~22년 중 등급 하향 조정

- OECD는 2001년 이후 쿠웨이트의 국가신용등급을 2등급으로 유지 중임.
- 반면, Fitch는 정부와 의회의 계속되고 있는 정치적 교착 상태로 인해 경제다각화, 보조금 정책 및 공공 부문의 개혁이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2022년 1월 쿠웨이트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1등급 하향 조정함.

- 쿠웨이트는 국제 실물경기 회복, 국제유가 상승과 OPEC+의 감산 완화 합의 이행 등으로 2021년 플러스 경제성장(0.9%) 및 GDP 대비 36%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IMF 등 주요 기관은 2022년에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국제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쿠웨이트가 플러스 경제성장(4.3%, IMF)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함.
- 2021년 국제유가 상승 등에 힘입어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16% 증가하였으나, 재정지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고정적 경상지출(공무원 임금 및 보조금)로 인해 GDP 대비 -1.5%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정부와 의회 간의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치적 교착 상태는 경제다각화, 보조금 개혁을 포함한 주요 경제·재정 개혁을 지연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하향 사유로 작용함. 다만, GDP의 3.8배, 총외채의 6.6배에 달하는 막대한 국부펀드(5,005억 달러 규모)는 여전히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음.